# 신안군, 무더위 맞서 '군민 안전 지키기' 총력 대응

## 폭염 예고 땐 재난상황대응반 가동 24시간 비상체제
## 무더위 쉼터 운영 연장·냉방비 지원·안전 지킴이 가동

신안군이 여름철 무더위에 맞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군민 안전 지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폭염이 예고될 경우 곧바로 재난상황대응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투입해 매일 안부 확인은 물론,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응급 상황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도 확립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지역 내 무더위쉼터도 적극 개방한다. 군은 쉼터 시설 일제 점검과 함께 야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24곳의 에어컨과 냉장고를 전면 교체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냉방비 지원도 병행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피난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 도심지와 주요 생활권역 내 폭염 대응 인프라도 확충 중이다. 버스정류장 등지에 스마트 그늘막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읍·면별 특성에 맞춘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마을안전지킴이' 180개 조도 가동하고 있다. 14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폭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대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회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방송, 건강 관리 요령 전파 등 주민 스스로도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향후 폭염 외에도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복합 재난에 대비한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지금도 더위와 싸우는 군민이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공직자가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군에서 준비한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대인(가운데) 신안군수 권한대행이 섬 마을을 찾아 폭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영암 장작가마 생활도기 '탕그릇'.

# 영암 전통 장작가마 생활도기 35종 출시

## 그릇·접시·다기세트·화병 등
## 5000원~30만원 가격대 다양

영암군은 생활 속 도기 문화 확산과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을 위해 영암도기의 예술성·고유성을 살린 전통 장작가마 생활도기 신제품 3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그릇, 접시, 컵, 다기세트, 화병 등 총 8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전통 유약의 질감과 현대 감각의 실용성을 결합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누구나 쉽게 생활도기를 가정에 들일 수 있도록 가격대는 5000원에서 3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시유도기의 고장' 영암은 오랜 도예 전통을 간직한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장작가마 제품은 복원용·전시용, 고가품 위주로 생산돼 대중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영암군은 이번 생활도기 생산 확대로 도기의 대중화 및 관광자원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도기 신제품은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구입할 수 있고, 영암군은 관광체험상품과 연계한 마케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전통 장작가마에서 탄생한 제품을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신제품을 기획했다"면서 "지역 도예의 예술성과 장작가마 특유의 질감이 어우러진 제품을 사용하며 도기와 함께 하는 생활을 누려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초복엔 전복이 반값!"…해남군, 소비 촉진 특별전

## 19일 로컬푸드직매장서 진행
## 1인당 구매 수량 2kg으로 제한

해남군이 초복을 맞아 전복 소비 촉진에 나선다.

해남군은 해남군전복양식협회와 함께 오는 19일 해남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초복맞이 전복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과잉생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 1000kg 한정 수량으로 반값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판매상품은 2종으로 전복 9미는 1만9000원, 15미는 1만5000원의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수량이 한정된 만큼 현장 수령만 가능하며, 택배비 지원 대신 전복 가격을 낮춰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1차 사전예약은 지난 7~8일 이틀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사전예약자는 오는 19일 행사 당일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군은 대량구매 후 재판매를 방지하고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수량을 2kg으로 제한했다.

현장판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전동안 전복찜, 전복 물회 등 전복의 맛과 요리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복 시식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전복특별전이 전복 어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전복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김산(가운데) 무안군수가 무안복합문화센터 1층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을 살펴보고 있다.

# 무안군, 청년 마음 치유 '온기우편함' 설치

## 복합문화센터·청년플랫폼 2곳
## 고민 편지 답장 정서 지원 사업

무안군은 청년들의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온기와 손잡고 무안복합문화센터 1층과 무안군 청년플랫폼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온기우편함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고민편지를 넣으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손 글씨로 답장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주는 정서 지원 사업이다.

(사)온기는 사회구성원의 우울감 완화, 정신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전국 84곳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남 지자체 중 청년센터 내 우편함을 설치한 곳은 무안군이 유일하다.

이번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은 무안군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온기우편함이 청년들이 고민을 편안하게 털어놓고 정성 어린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을 표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군가족센터
## 다문화 가정 배우자 교육

진도군이 최근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행복한 대화'를 진행했다.

진도군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소통을 강화해 부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함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한 참가자는 "부부의 행복한 대화가 자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일상생활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 의지를 보였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시, 청년 실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 11월까지 요리·AI 활용법 등 교육

목포시가 지역 청년을 위한 실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ing'을 운영 중이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센터가 주도적으로 청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청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재테크, 건강관리, 요리, 이미지메이킹,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월에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특강 '아빠가 알려주는 생활 재테크 지식', 원도심 명소에서의 스냅사진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진 핫플레이스'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이밖에 요리 실습, 이미지메이킹, 생성형 AI 활용법,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4억 돌파…지난해 대비 182%↑

## 현장 홍보, 다양한 이벤트 주효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비 182% 증가하는 등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6월 말 현재 4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억원 돌파 시점이 10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는 4개월이나 앞당긴 성과로, 영암군의 꾸준한 현장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억 2000만원에서 182%, 기부건수는 1197건에서 3274건으로 274% 증가했다.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53개의 지역 안팎의 기관·기업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현장 기부 이벤트도 함께 추진해 HD현대삼호를 포함한 대불산업단지 입주업체 임직원, 광주광역시민, 서울특별시민 등 576명으로부터 총 567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해 전 국민의 기부행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했소? 한우왔소!' 이벤트로 신규기부자와 재기부에게 추첨을 거쳐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고, 30·31일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이벤트 한우상품을 주문하면 한우를 증량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고향사랑기부금 4억원 조기 달성은 영암군에 보내 준 기부자들의 성원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을 돌며 다가가는 홍보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중앙재테크박람회에 설치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 부스. <영암군 제공>

# 영광군, 취약계층 급수시설 교체 신청 접수

## 10곳 선정 경제적 부담 덜어줘

영광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거주주택 10곳을 선정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오래된 옥내급수시설의 교체할 예정이다.

옥내에 설치된 수도 배관(강관 등)의 노후로 녹물 등이 상시 발생하거나 오래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많은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고가의 공사비로 인해 교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녹슬고 오래된 옥내 급수시설을 교체하여 깨끗하게 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수도 계량기 검침시 누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수돗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